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30. 톨레도의 풍경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마음 먹은 것처럼 되지도 않고 때론 계획이 틀어진다. 준비 없이 무슨 일을 당했을 때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물론 그런 식의 표현은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쓰게 되지만 갑자기 전망대에 멈춰 관광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 '톨레도의 풍경'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나는 그야말로 머리를 광 하고 맞은 느낌이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톨레도에 대해 검색해 본 결과 현지에 도착해 '꼬마 기차'라는 것을 타면 톨레도 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언덕 전망대에 갈 수 있다고 해서 나는 버스에서 내려 그 '꼬마 기차' 타는 곳을 찾을 생각만 골똘히 하고 있었다. 아니면, 톨레도에 도착해 엘 그레코가 '톨레도의 풍경'을 그렸던 그 언덕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다 어렵게 그곳을 발견했다면 더 의미 있었을까? 그런 수고없이 편안하게 바로 그 지점에 도착했는데 왜 그렇게 당황했는지 모르겠다.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한 톨레도 시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반대편 지점에 멋진 전망대를 만들어 놓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관광객들을 태우고 제일 먼저 그 지점에 내려 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진행되는 현실은 '톨레도의 풍경'에 대한 동경과 환상을 가득 품고 여기까지 온 내 낭만적 사고방식과 한참 거리가 멀었다.

얼어붙은 듯 서 있는 나에게 ROI 외쳤다. "엄마, 정신 차려 봐!" 딸은 내 손을 잡아 끌고 전망대 앞으로 달려 갔다. 버스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한창 사진을 찍느라 떠들썩했다. 나는 전망대에 서서 낮을 잃고 맑은 하늘 아래 펼쳐진 톨레도의 풍경을 바라 보았다. 똑같았다. 엘 그레코의 그림과 똑같았다. 엘 그레코가 '톨레도의 풍경'을 그린 것은 1600년쯤으로 추정되는데 내 앞의 풍경은 그림 속에 나타난 오백 년 전의 톨레도 모습과 똑같았다. 색채감이 다르고 그림 속 풍

경이 실제보다 단순해 보이지만 오백 년의 세월을 고려한다면 아무 것도 아니다. 톨레도의 풍경은 그 자리에 변치 않고 존재하고 있었다.

엘 그레코가 '톨레도의 풍경'에서 그린 톨레도의 하늘은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의 하늘과 함께 서양화 역사 중에 가장 유명한 하늘로 일컬어진다. 밤인지 낮인지 분간할 수 없는 하늘에 가득찬 구름 사이로 번개 치듯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모습은 그 아래 펼쳐진 중세 도시 톨레도 전체가 마치 심오한 영혼을 지닌 것처럼 느끼게 한다. 지금 내 앞의 실제 톨레도 풍경은 스페인의 파란 겨울 하늘 아래 따뜻한 갈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톨레도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어느새 놀랐던 마음이 사라지고 감격이 터질 듯 밀려 왔다. 나는 R의 손을 잡고 흔들며 소리 질렀다. "봐! 그림과 똑같지?" 톨레도 이야기를 되풀이 들으며 엘 그레코의 그림을 수없이 보았던 R은 엄마와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그래, 엄마! 어찌보면 똑같네!" 우리는 사진을 찍을 생각도 못하고 그저 앞만 보고 서 있었다.

엘 그레코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세계 최고의 화가가 될 꿈을 품고 이탈리아를 거쳐 스페인으로 왔다. 마드리드에 가서 펠리페 2세의 궁정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운명은 그를 톨레도에 정착하게 만들었다. 당시 유럽 최고의 종교, 문화 중심지였던 톨레도에서 그는 일생의 역작들을 그리게 된다. 나는 오늘 그가 '톨레도의 풍경'을 그렸던 그 언덕에 찾아 왔다. 그리고 그때 그가 보았던 풍경을 같은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다. 엘 그레코의 시선과 내 시선이 오백 년의 세월을 건너 뛰며 겹치고 있었다.

5분은 금새 흘러 갔다. 관광객들은 다시 버스에 올라 탔고 할머니 가이드가 버스 앞에서 나머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그쪽을 보면서 그냥 이대로 관광 코스에서 이탈해 버릴까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이 언덕에 더 오래 머물고 싶었기 때문이다. 눈치가 빠른 ROI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다. "엄마, 우선 관광을 마치고 이따가 꼬마 기차 타고 다시 오자."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해져서 버스에 다시 올라탔다. 관광객 숫자를 확인한 가이드가 버스를 출발시켰다. 뒤로 멀어지는 톨레도 풍경을 돌아 보며 나는 마음 속으로 말했다. 이따가 다시 올게. 이대로 떠날 수는 없잖아.....

메디케어 aga 처방약보험

치과: 본인이 원하시는 치과의사 선택과 전반적인 치과 다 커버되는 우대플랜 (\$2000/yr)

- ★ 올해 65세가 되시는 분 (메디케어 수혜자)
- ★ 시니어 우대플랜 - Part C (A+B+D)
- ★ Extra Help (처방약 보조)가 필요하신 분
- ★ Part B 보조 (\$125/mo.) (\$148.50-\$125 = \$23.50 만 냄)
- ★ Flex Card (\$500), Grocery (\$50/mo), OTC (비처방약)커버
- ★ 안경, 운동, 침술, 치과, 보청기, 발치료, 교통편제공
- ★ 해외여행 중 응급치료, 등등 (회사마다 조금씩 다름)
- ★ 현재 플랜을 바꾸고 싶으신 분
- ★ 타주 혹은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 오신 분
- ★ Medicare와 Medicaid (메디칼)을 같이 갖고 계신 분
- ★ Supplement Plan (PPO)
- ★ 의사나 병원 선택의 자유



전문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로 모든회사를 취급하며 손님에 맞는 적합한 선택으로 비교해 드리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Sally Kim Licensed Insurance Agent
(714)714-6393 License No. 0B07129 Skim8588@yahoo.com

Buena Park Nursing Center ★★★★★

부에나 팍 양로병원

- ▶ **Skilled Nursing**
IV 투여, 당뇨 및 투석관리, 스페셜 통증관리, 튜브영양법, Wound Care, TPN 등
- ▶ **Subacute Unit**
Respiratory Therapy, Tracheostomy Care Ventilator 등

서비스	재활치료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한국인 스태프 / 한국인 소셜워커 한국책, 신문 / 24시간 한국방송 다양한 한인교회 봉사활동	물리치료 (PT) 직업치료 (OT) 언어치료 (ST)

메디케어, 개인, 메디칼, HMO, PPO 취급합니다

한국어: 562-240-3516 www.buenaparknc.com
영어: 714-828-8222 Fax: 714-828-1467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COVID-19 PCR 음성 확인서

\$60

48시간 이내 검사 결과서 발급!

그리운 고국에 가시려면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후 48시간 이내 발급해 드립니다.

코로나-19 무/료/검/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 제 4차 대유행이 예상됩니다. 정기적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LIA 인증 CrestView Laboratory와 손잡고 무료로 코로나-19를 검사해 드립니다.

코로나-19 항/체/검/사

10명 이상 단체, 직장에 직접 방문하여 PCR검사와 Anti-body 검사를 무료로 해 드립니다. (단, Anti-body 검사는 건강보험, 메디케어, 메디칼 소지자에 한해 무료 검사해 드립니다. 예약 시 자세한 사항 문의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셨지만 항체 (Anti body) 가 형성되지 않으면 Covid-19로 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코로나에 감염되었거나 백신을 접종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Anti-body 검사를 받아보세요.

캐롤 박 (213) 999-1633

6281 Beach Blvd. #19, Buena Park, CA 90621

애너하임 나눔종합병원

3012 W Orange Ave. #409, Anaheim, CA 92804

